

보도시점 2026. 3. 18.(수) 18:30  
< 3.19.(목) 조간 >

배포 2026. 3. 18.(수)

## 호혜적 한중 산업·통상 협력으로

### 한중 정상회담(1.5) 후속 조치 이행한다

- 中 산업정보화부와 4년만의 산업장관회의 개최, 수평적·호혜적 산업 협력 협의
- 中 상무부와 글로벌 물류·원자재 수급 불확실 속 한중 간 공급망 안정화 협력 공감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18(수)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여 한중 상무장관회의와 한중 산업장관회의를 차례로 개최하였다.

먼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정상 합의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과 공급망 안정화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특히 물류 지연이나 원자재 수급 위기 시 공급망 핫라인 등 소통 채널을 즉시 가동하여 공동 대응해 나가는 한편 희토류, 영구자석 등 핵심 품목은 수출통제대화 및 신속·통용 허가 제도 등을 활용하여 한중 공급망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교역 분야에서는 중국의 내수 확대 기조를 활용해 소비재 등의 분야로 양국 간 협력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주요 경제 대성(大省)과의 교류회 및 박람회 활용해 비즈니스 접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상반기 내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합의점을 도출하고, 특히 지재권 이행위 재개를 통해 중국 내 우리 음악, 영화 등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어 김 장관은 리 러청 중국 산업정보화부 부장과 제5차 한중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는 '22.1월 화상 개최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는 양국 간 산업장관회의로서, 대면 개최는 '18.5월 서울 회의 이후 8년 만이다. 양측은 그간 한·중 산업 협력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평적·호혜적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면서, 반도체·배터리를 비롯한 첨단 분야에서 협력을 공고히 하고, 산업의 그린전환, 실버산업 등 협력 유망 분

야에서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배터리 산업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양국 간 산업·공급망을 안정화할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양국 간 교역액의 26%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정책적 소통을 강화하며 중국 내 우리 기업 반도체 공장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기후 변화와 인구 고령화라는 공통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의 그린전환과 실버산업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이를 위해 기술을 교류하고 경험을 공유해 나가는 한편 기업·연구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국은 향후 산업의 그린전환을 위한 디지털 기반으로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김 장관은 한·중의 산업 구조가 보다 경쟁적으로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의 호혜성은 불변임을 강조하면서, 유망한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양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을 극복해 나가자고 하였다. 끝.

담당 부서	통상협력국 동북아통상과	책임자	과 장	김덕구 (044-203-5690)
		담당자	사무관	문경필 (044-203-5691)
		담당자	사무관	김지은 (044-203-5694)

